DBpia

「안민가」에 대하여

저자
(Authors)

금기창

출처
(Source)

어문학 , 1992.4, 43-64(22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92.4, 43-64(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107

APA Style

금기창 (1992). 「안민가」에 대하여. 어문학, 43-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7 11: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安民歌」에 對하여

琴 基 昌*

〈目 次〉

Ⅰ. 緖 言
Ⅱ. 「安民歌」의 構造
Ⅲ. 「安民歌」의 解讀·解釋
Ⅳ. 結 言

Ⅰ. 緖 言

「三國遺事」에 傳하고 있는 鄕歌 「安民歌」도 小倉進平의 「鄕歌及び吏讀の研究」란 著書 以來 여러 學者들에 依하여 多角度로 解讀·解釋이 試圖되어 그동안 많은 業績들이 蓄積되어 있다.

「安民歌」는 新羅 第三十五代 景德王때 忠談이 王에게 지어서 바친 作品이며 「理安民歌」라고도 한다. 이 노래는 愛民順天하는 君父의 情과 牧民의 어머니(臣)로서 受命 治民하는 律令이 嚴正 匡明할 것과 被治者인 百姓들의 順從을 強調하여 君·臣·民 三位一體의 團合을 企待한 理安民의 原理 原則을 소리 높이 謳歌한 노래라 하겠다.

「三國遺事」 卷二 紀異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의 說話는 「安民歌」 歌話라고 할 수 있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歌話와 더불어 傳하는 이 노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思想이 靈異傳說의 中心思想으로서 歌話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일찍이 「忠談의 鄕歌 二篇에 對하여」에서 筆者는 「安民歌」의 解讀에 있어 闖入할지도 모르는 昏迷와 獨斷을 抑制하기 爲하여 「安民歌」歌話를 分析 考察

* 대전대 교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 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한바 있다.[1]

筆者는 이미 嗟辭詞腦를 單純한 言語形式의 한 構造로 보고 그 形式의 分析을 通하여 얻어진 結果, 卽 三句六名格 構造를 지닌 特殊形式의 作品으로 把握한 바 있다.[2]

그리하여 嗟辭詞腦格 鄕歌인 「安民歌」도 三句六名的 構造를 基調로 하고 거기에 修辭를 加하여 아름답고 整然하게 다듬어 놓은 노래로 보아진다.

이러한 觀點에서 筆者는 「安民歌」의 解讀·解釋에 論據가 될만한 四書(論語 孟子 中庸 大學)에 담겨 있는 政治思想에 關한 記錄들을 援用하면서 鄙見을 開陳해 보기로 하겠다.

Ⅱ. 「安民歌」의 構造[3]

「安民歌」는 仁義禮智信의 五常의 德, 卽 仁愛의 德에 論據를 둔 政治理念을 노래한 作品이다.

「安民歌」의 全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古如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이 노래를 各行末의 語尾를 中心으로하여 文法的 分析을 加하여 보면, 이 노래는 그 內部에 五個의 終結語尾를 가지고 있다. 卽 第一·第二·第四·第八·第十行의 末尾에 終結語尾가 實現되어 있다. 그러나 第一·第二行 末尾의 終結語尾 「也」(여)는 「如」(다)처럼 強하지 못하고 文脈的 意味로는 連結語尾와 같은 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安民歌」를 終結語尾를 中心으로 다시 整理하여 보면 三個의 構造的 單位, 卽 三句的 構造로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琴基昌 : 「忠談의 鄕歌 二篇에 對하여」『韓國詩歌의 硏究』(1982), p.165
2) 琴基昌 : 「嗟辭詞腦의 歷史的 變遷에 對하여」『語文學』 第38輯(1979), p.15
3) 琴基昌 : 「忠談의 鄕歌 二篇에 對하여」『韓國詩歌의 硏究』(1982), p.170

성균관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第一句 (初句) {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第二句 (中句) {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古如.

第三句 (終句) {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上記의 노래의 三句的 構造에 있어 第一句(初句)의 構成을 보면 文脈이 「母史也」(어시여)에서 中斷된다. 그런 故로 第一句는 複文이며 二個의 構成的 要素, 卽 二名으로 成立되어 있다.

第二句(中句)에 있어서는 「治良羅」(다술아라)에서 文脈이 中斷된다. 그러므로 第二句도 複文이며 二個의 構成的 要素, 卽 二名으로 成立되어 있다.

第三句(終句)에 있어서는 文脈이 「爲內尸等焉」(ᄒᆞ늘ᄃᆞᆫ)에서 中斷된다. 그런 故로 第三句의 構成도 二名으로 成立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以上 分析한 結果를 歸納하여 보면, 이 노래는 三句的 構造로 되어 있으며 各句는 句마다 二個의 構成的 要素, 卽 二名으로 成立되어 있다. 따라서, 「安民歌」의 三句六名的 構造는 다음과 같다.

第一句 (初句) { 第一名…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第二名…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第二句 (中句) { 第三名…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
第四名…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古如.

第三句 (終句) { 第五名…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第六名…國惡太平恨音叱如.

以上의 構造를 두고 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事實은 第二行 末尾에 終結語尾 「여」, 第六行 末尾에 命令法語尾 「아라」, 第九行 末尾에 假定拘束法語尾 「ᄋᆞᆯᄃᆞᆫ」等 처럼 特異한 連結語尾를 內包하고 있으며 第四·第八·第十行 末尾에 終結語尾가 實現되어 있다. 그러므로 「安民歌」는 典型的인 三句六名體歌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이 鄕歌는 忠談이 仁義禮知信의 五常의 德에 바탕을 둔 治國觀을 一篇의 노래에 담아서 景德王에게 바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Ⅲ. 「安民歌」의 解讀·解釋

이 「安民歌」에 對하여는 진즉부터 여러 學者들에 依하여 解讀·解釋이 試圖되어왔다. 筆者는 本歌의 解讀에 對한 諸家의 異見들을 問題解決에의 길잡이로 삼으면서 「安民歌」의 解讀·解釋에 對한 鄙見을 披瀝해 보려한다.

第一名 :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君隱父也」에 있어 「君」은 音讀, 「隱」은 音借 「은 」, 指定助詞. 「父」는 訓讀 「어비」, 「也」는 音借 「여」,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君隱父也」에 對하여는 「君은 어비여」이라 읽는다.

「臣隱愛賜尸母史也」에 있어 「臣隱」에 對하여는 「臣」은 音讀, 「隱」은 音借 「은」, 따라서, 「臣隱」은 「신은」이라 읽는다. 「愛賜尸」에 對하여는 「愛」은 訓讀 「ᄃᆞᆺ」, 「賜」는 通音借 「샤」, 「尸」는 略音借 「ㄹ」, 그런데 「愛」은 訓讀 「ᄃᆞᆺ」이요, 「賜」는 通音借 「샤」이지만 「ᄃᆞᆺ샤」는 우리의 音韻體系에 맞지 않으므로 「ᄃᆞᆺ十ᄋᆞ샤」→「ᄃᆞᄉᆞ샤」로 읽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愛賜尸」에 對하여는 「ᄃᆞᄉᆞ샬」이라 읽고 「사랑하실」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한다. 卽

ᄃᆞᆺ(動詞語幹)十ᄋᆞ시(主體尊待先語末語尾)十오(對象法語尾)十ㄹ(冠形法語尾)

「愛賜尸」에 對하여 「ᄃᆞᄉᆞ샬」이라 읽는데에는 表記에 若干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別 異論이 없을 것 같다.

「母史也」에 對하여는 「母」 訓讀 「엇」, 「史」 通音借 「시」, 「也」 音借 「여」.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母史也」에 對하여는 「엇시여」 곧 「어시여」이라 읽고, 「어미요」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한다.

筆者 按컨대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의 「也」는 終結語尾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境遇의 終結語尾는 強調 咏嘆하기 爲하여 連結語尾를 終結語尾 「也」로 換置한데 不過한 것으로 看做된다. 이와 같은 境遇의 終結語尾는 咏嘆의 意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語勢가 「知古如」「來叱多」처럼 強하지 못하고 文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的 意味로는 連結語尾와 같은 機能을 지니고 있다.

筆者는 「安民歌」 第一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君은 어비여
臣은 ᄃᆞᄉᆞ살 어시여

解 釋
君은 아비요
臣은 사랑하실 어미요

第二名 :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에 있어 筆者는 '民焉 狂尸恨 阿孩古 爲賜尸知'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民焉」에 있어 「民」 音讀 「민」, 「焉」 音借 「은」.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民焉」에 對하여는 「民은」이라 읽고 「百姓은」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한다.

그러나 「民焉」이 정렬모에게 있어서는 「아ᄅᆞ믄」이요, 金俊榮에 있어서는 「민언」이고, 徐在克은 「민은」으로 나와 있다.

「狂尸恨」에 對하여는 「狂」 訓讀 「얼」, 「尸」 略音借 「ㄹ」 「얼」의 末音添記, 「恨」 通音借 「ᄒᆞᆫ」.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狂尸恨」에 對하여는 「얼ᄒᆞᆫ」이라 읽고 「어리석은」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한다. 「狂尸恨」에 對하여 홍기문 만이 「어리한」으로 읽으려 하고 있다.

「阿孩古」에 있어 「阿」 音借 「아」, 「孩」 音讀 「히」, 「古」 音借 「고」 引用助詞. 그러므로 「阿孩古」에 對하여는 「아히고」이라 읽는다. 「阿孩古」에 있어 「아히고」로써 臨한데 對하여는 別 異論이 없을 것 같다.

「爲賜尸知」에 對하여는 「爲」 訓讀 「ᄒᆞ」, 「賜」 音借 「샤」, 「尸」 略音借 「ㄹ」, 「知」 音借 「디」.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爲賜尸知」에 對하여는 「ᄒᆞ샬디」이라 읽는다. 그런데 「ᄒᆞ샬디」에 對하여 文法的 分析을 加하여 보면,

ᄒᆞ(動詞語幹)+시(主體尊待補助語幹)+오(對象法先語末語尾)+ㄹ(冠形格語尾〈推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定>)+디

와 같이 된다. 여기서 「디」는 다시 ᄃᆞ(不完全名詞)+이(主格助詞)로 分析할 수 있으나 實質的으로 쓰이는 意味와는 멀어지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ᄋᆞᆯ디」를 굳어진 하나의 語尾로 보아 「을지면」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한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爲賜尸知」에 對하여는 「ᄒᆞ샬디」이라 읽고 「하실지면」을 뜻하는 語詞로 풀이하려 한다. 卽

ᄒᆞ(動詞語幹)+시(主體尊待補助語幹)+오(對象法先語末語尾)+ᄋᆞᆯ디(假定拘束法語尾)

「爲賜尸知」에 對하여 金完鎭·徐在克을 除外한 모든 解讀者들이 「ᄒᆞ샬디」로 풀이한데 對해 金·徐 두 분만이 「ᄒᆞ실디」로 臨하고 있다. 特히 金完鎭이 「爲賜尸知」를 第三行 末尾에서 떼어 第四行 序頭로 자리바꿈하여 읽으려는 態度에 對하여는 筆者에게 있어 首肯이 가지 않는다.

「民是」에 있어 「民」 音讀 「민」, 「是」 訓借 「이」 主格助詞. 그러므로 「民是」에 對하여는 「民이」이라 읽는다. 「民是」에 對하여 「民이」로 읽는 데에는 別異論이 없을 것 같다.

「愛尸」에 對하여는 「愛」 訓讀 「ᄃᆞᆺ」, 「尸」 略音借 「ㄹ」. 그런데 「尸」가 母音 뒤에서는 「ㄹ」이지만, 子音뒤에서는 「ᄋᆞᆯ」로 읽을 수가 있겠다. 따라서. 「ᄃᆞᆺ+ᄋᆞᆯ」→「ᄃᆞᇙ」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愛尸」에 對하여는 「ᄃᆞᇙ」이라 읽고, 動名詞로 보아 「사랑해 줄 것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한다. 卽

ᄃᆞᆺ(動詞語幹)+ᄋᆞᆯ(未定法動名詞語尾)

「知古如」에 있어 「知」는 訓讀 「알」, 「古」는 音借 「고」, 「如」는 義訓借 「다」 終結語尾.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知古如」에 對하여는 「알고다」이라 읽고 「알겠도다」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한다. 卽

알(動詞語幹)+ᄋᆞᆯ(未定先語末語尾)+고(強調, 咏嘆先語末語尾)+다(敍述法終結語尾)

「知古如」에 對한 解讀에 對하여는 「知古如」를 「알고다」로 읽는 系列과 「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고다」로 보는 두 系列이 있다. 「알고다」로 읽는 系列에는 小倉進平·梁柱東·金完鎭 等의 諸氏가 있고, 「디고다」로 보는 系列에는 徐在克·金俊榮의 두 분이 있다. 이와같이 「知古如」에 對한 解讀이 둘로 나뉘게 된 것은 「愛尸」(ᄃᆞᄉᆞᆯ)의 意味와 그 內容上의 主語에 對한 想定이 서로 다른데 基因한다 하겠다. 「ᄃᆞᄉᆞᆯ 디고다」로 읽는 系列은 사랑하는 主體가 「民」이 되어 있는데 反해, 「ᄃᆞᄉᆞᆯ 알고다」로 보는 系列은 「ᄃᆞᄉᆞᆯ」을 動名詞로 보고 있으며 그 主語를 「君」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小倉進平[4](ᄃᆞᄉᆞᆷ)·金完鎭[5]은 「愛尸」의 意味 및 內容上의 主語에 對하여 特定한 主語를 가지지 않는 '사랑한다는 것' 또는 '사랑' 그 自體를 意味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문[6]은 「尸」는 오직 「ㄹ」의 끝소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리」로도 되고 있다고 말하고 「愛尸知古如」에 對하여 「ᄃᆞᄉᆞ리 알고다」이라 읽고 「사랑하는 이 압내다」로 풀이 하고 있고, 정렬모[7]은 「ᄃᆞᄋᆞᆯ」을 名詞로 보고 「ᄃᆞᄋᆞᆯ 디고다」로써 「아니 어여뿐가」로 나와 있다.

그러나 筆者에게는 그와 같은 解讀들은 同調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된다. 이 句節은 마땅히 「ᄃᆞᄉᆞᆯ 알고다」이라 읽고, 「사랑해 줄 것을 알겠도다」와 같이 強調·咏嘆調로 解讀·解釋에 臨하여야 한다고 筆者는 본다.

筆者는 「安民歌」 第二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民은 얼ᄒᆞᆫ 아히고 ᄒᆞ살디
民이 ᄃᆞᄉᆞᆯ 알고다

解 釋

百姓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지면
百姓이 사랑해 줄 것을 알겠도다

4) 小倉進平 : 『鄕歌及吏讀の硏究』(1929), 近澤書店出版部, p. 166
5) 金完鎭 : 『鄕歌解讀法硏究』(1982), p. 73
6) 홍기문 : 『향가해석』(1956), 과학원, pp131~133
7) 정렬모 : 『향가연구』(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pp. 289~29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第三名：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에 있어 筆者는 '窟理叱 大肹 生以支所音 物生'과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窟理叱」에 있어 「窟」은 音讀 「굴」, 「理」는 略音借 「ㄹ」 「굴」의 末音添記, 「叱」은 略音借 「ㅅ」 冠形格助詞. 그러므로 「窟理叱」에 對하여는 「굴ㅅ」 곧 「굿」이라 읽는다. 卽

굴(名詞)+ㅅ(冠形格助詞)

그러므로 「굿」은 「굴의」를 뜻하는 語詞로 보아진다.

「大肹」에 對하여는 「大」 訓讀 「큼」, 「肹」 音借 흘. 따라서 「大肹」은 「큼흘」이라 읽고 「큼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크(形容詞語幹)+우(插入母音)+음(名詞形語尾)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窟理叱大肹」에 對하여는 「굿 큼흘」이라 읽고 「굴의 큼을」을 뜻하는 語詞로 풀이하려 한다.

「窟理叱大肹」에 對하여는 小倉進平의 「굴ㅅ댈」(樞機를)[8], 梁柱東[9]의 「구믈ㅅ다히」 「구물대면서), 池憲英의 「구술ᄂᆞ」(神國)[10], 金俊榮의 「구무릿더흘」(구물거리며)[11], 徐在克의 「구릿대흘」(嘆息 또는 詛呪를)[12], 金完鎭의 「구릿하ᄂᆞᆯ」(大衆을)[13]로 이어져 나와 있다.

한편 홍기문[14]은 「구리ㅅ대흘」이라 읽고 「구리ㅅ대」를 中部 方言의 「굴대」(軸)에 該當되는 말로 보았으며, 轉하여 「輪廻의 車軸」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고, 정렬모[15]는 「구리ㅅ대흘」이라 읽고, 「구리」를 굴다(轉)의 「굴」에

8) 小倉進平：『鄕歌及吏讀の硏究』(1929), pp. 166~167
9) 梁柱東：『古歌硏究』(1975), pp. 273~278
10) 池憲英：『鄕歌麗謠新釋』(1947), p. 20
11) 金俊榮：『鄕歌文學』(1983), pp. 104~105
12) 徐在克：『新羅鄕歌의 語彙硏究』(1979), p. 13
13) 金完鎭：『鄕歌解讀法硏究』(1982), pp. 73~74
14) 홍기문：『향가해석』(1956), pp. 133~135
15) 정렬모：『향가연구』(1965), p. 29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接尾辭「이」가 添加된 것으로 보고,「전통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다. 이들의 解讀들을 두고 보면, 難解語로서의 面目 躍如함이 있다. 그러나 筆者는 그와 같은 解讀들은 따를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生以支所音」의 問題가 있다.「生以支所音」에 있어「生」은 訓讀「살」,「以」는 訓借「리」,「支」는 略音借「ㅅ」,「所」는 音借「소」,「音」은 略音借「ㅁ」.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生以支所音」에 對하여는「살리ㅅ소ㅁ」곧「살릿솜」이라 읽는다.

그런데 여기서「生以支所音」(살릿솜)의「솜」(所音)은 內, 裡, 裏의 義의「솝」(名詞)의「ㅂ」이 뒤 따르는「物生(물生)」의「ㅁ」에 同化되어「ㅁ」으로 된 것이다. 卽

살릿솝 → 살릿솜, 그런데「살릿솜」의「살릿」은
살리(動詞語幹)+이(名詞派生接尾辭)+ㅅ(冠形格助詞)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生以支所音」에 對하여는「살릿솜」이라 읽고,「살(居)게 하는 안(內)의」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生以支所音」이 小倉進平에게 있어서는「生으로 굴 바 인」이요, 梁柱東[16]에게 있어서는「살 손」이고, 池憲英은「잇실」, 金完鎭은「支」字에서 끈어 읽어「生以支」로써「살이기」, 徐在克은「내히숩」, 金俊榮은「사닗손」, 金善琪는「나리디숌」, 홍기문[17]은「나히 고이솜」, 정렬모[18]는「사로기스리」로 나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解讀들은 筆者에게 있어 首肯이 가지 않는다.

「物生」에 對하여는 音讀하려 한다. 諸橋轍次著『大漢和辭典』「物」字條에 보면

是其生也 與吾同物……[左氏 桓六]
[注] 物. 類也.

그러므로「物」은「類」, 곧「무리」를 뜻하는 語詞로 보아진다.

「生」에 對하여는『孟子』告子篇 第六上 百五十章에 보면

16) 梁柱東 :『古歌硏究』(1975), pp. 279~281
17) 홍기문 :『향가해석』(1956), p. 135~136
18) 정렬모 :『향가연구』(1965), pp. 290~291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에 있어 「生」은 生命 곧 「목숨」을 뜻하는 語詞라 하겠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物生」에 對하여는 音讀 「물生」이라 읽고 「무리 목숨」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物生」에 對하여 小倉進平·梁柱東·金俊榮 等 諸氏에게 있어서는 「物生」이요, 池憲英에게 있어서는 「돌ᄂᆞ」이고, 金完鎭은 앞의 「所音」까지를 包含한 「바라ᄆᆞᆯ씨」로써 「익숙해져 있기에」, 홍기문은 「갓나히」(갓난이)로 나와 있다.

이에 對해 정렬모[19]는 「物生」을 第五行 末尾에서 떼어 第六行 序頭로 자리 바꿈하여 「物生此肹」과 같이 끊어 읽어 「뭇사리ᄒᆞᆯ」(蒼生을)로 解讀하고 있다. 「此肹」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物生」이라는 것을 勘案한다면, 이 讀法은 解讀의 常軌를 더욱 벗어난 것으로서 基礎的인 事實을 忘却한 解讀이라 아니할 수 없다.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은 解讀上의 昏迷가 極甚했던 句節의 하나라 하겠다. 參考로 諸家의 解讀을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小倉進平 : 굴ㅅ댈 生으로 ᄒᆞᆯ 바인 物生(樞機에 生氣있게 하는 者)
梁柱東 : 구믈ㅅ다히 살ᄂᆞᆫ 物生(구믈 구믈 사는 物生)
池憲英 : 구술ᄂᆞ 잇실 돌ᄂᆞ(神國에 살고 있는 衆生)
徐在克 : 구릿대ᄒᆞᆯ 내히ᄉᆞᆷ 물生(噴息을 내뿜고 있는 뭇 蒼生들)
金俊榮 : 구무럿 ᄃᆡ흘 사닐ᄂᆞᆫ 物生(구물거리며 사는 바 物生)
金完鎭 : 구릿하ᄂᆞᆯ 살이기 바라ᄆᆞᆯ씨(大衆을 살이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홍기문 : 구릿대ᄒᆞᆯ 나히 고이ᄉᆞᆷ 갓나히(輪廻의 車軸을 괴고 있는 갓난이)
정렬모 : 구리ㅅ대ᄒᆞᆯ 사로기스리(전통을 살리리라)

以上을 두고 보면, 序頭의 '窟理叱大肹'에 對한 解讀과 行末의 '物生'에 對한 解讀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近似値를 볼 수 있을뿐 그 밖의 句節에 對하여는 果然 이것이 같은 句節에 對한 解讀인가를 疑心하게 할 程度이다.

「此肹喰惡支治良羅」에 있어 筆者는 「此肹 喰惡支 治良羅」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19) 정렬모 : 『향가연구』(1965), p. 29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此肹」에 對하여 「此」는 訓讀 「이」, 「肹」은 音借 「흘」, 따라서 「此肹」에 對하여는 「이흘」이라 읽고 「이들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喰惡支」에 있어 「喰」은 『大漢和辭典』 「喰」字條에 보면

喰 : 飧(飧)也. [傳]飧, 熟食, 謂黍稷也.

로 나와 있고 또 『孟子』 膝文公篇 第三上 五十章에 보면

賢者與民並耕而食 饔飧而治

[注] 饔飧, 熟食也, 朝曰饔, 夕曰飧

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喰」은 義訓讀 「익혀먹」(熟食)이라 읽는다. 「惡」은 略音借 「ㄱ」 「먹」의 末音添記, 「支」는 略音借 「이」 副詞派生接尾辭. 따라서, 「익혀먹+이」→「익혀머기」.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喰惡支」에 對하여는 「익혀머기」이라 읽고 「익혀먹게」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喰惡支」가 小倉進平에게 있어서는 「먹어」이요[20],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머기」이고[21], 池憲英에게서는 「괴옷」, 金俊榮은 「먹앙」[22], 徐在克은 「좌히」, 金完鎭은 「치악」[23], 홍기문[24]은 「머거디」, 정렬모[25]는 「소노기」로 나와 있다. 그러나 筆者는 그와 같은 意見들은 따를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마땅히 「익혀머기」이라 읽고, 「익혀먹게」를 뜻하는 語詞로 풀이 하여야 한다고 筆者는 본다.

「治良羅」에 對하여는 「治」는 訓讀 「다술」, 「良」는 通音借 「아」, 「羅」는 音借 「라」, 그러므로 「治良羅」는 「다술아라」이라 읽고, 「다스려라」를 뜻하는 語詞로 筆者는 보려 한다. 即

다술(動詞語幹) + 아라(命令法語尾)

그러나 三人稱에 對한 命令은 本格的인 命令이 될 수 없다. 그런 意味에서

20) 小倉進平 : 『鄕歌び吏讀の硏究』(1929), p. 168
21) 梁柱東 : 『古歌硏究』(1975), pp. 282~283
22) 金俊榮 : 『鄕歌文學』(1983), p105
23) 金完鎭 : 『鄕歌解讀法硏究』(1982), p. 76
24) 홍기문 : 『향가해석』(1956), p. 139
25) 정렬모 : 『향가연구』(1965), p. 29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語尾 「아라」는 그 語勢가 第四, 第八行의 末尾 「如」처럼 強하지 못하고, 文脈上의 意味로는 連結語尾와 같은 機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境遇의 命令法語尾는 뜻을 強調하기 爲한 意圖的 表現으로 看做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筆者는 「治良羅」에 對하여 「다스려라」를 뜻하는 語詞로 보고 第六行 末尾에 句讀點(comma)이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보려 한다.

「治良羅」에 對하여 小倉進平[26]·정렬모[27]에게 있어서는 「다ᄉᆞ리라「(다스리라)이요, 梁柱東[28]·池憲英[29]에게 있어서는 「다ᄉᆞ리」(다시리어)이고, 홍기문[30]에게서는 「다ᄉᆞ라라」(편안히 하여라), 金俊榮[31]은 「다ᄉᆞᆯ아라」(다스려라), 徐在克[32]은 「다ᄉᆞᆯ아라」(다스릴지어다), 金完鎭[33]은 「다ᄉᆞ릴러라」(다스릴러라)로 이어져 나와 있다.

只今까지의 解讀中 筆者는 金俊榮의 解讀 「다ᄉᆞᆯ아라」(다스려라)를 最上의 成果로 삼으려 한다.

筆者는 「安民歌」 第三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아래와 같이 提示한다.

解 讀

굻 쿰흘 살릿솜 物生
이흘 익혀머기 다ᄉᆞᆯ아라

解 釋

굴의 큼을 살(居)게 하는 안(內)의 무리 목숨
이들을 익혀먹게 다스려라.

第四名 :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古如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에 있어 筆者는 「此地肹 捨遣只 於冬是

26) 小倉進平 : 『鄕歌ぴ吏讀の硏究』(1929), p. 168
27) 정렬모 : 『향가연구』(1965), pp. 139~140
28) 梁柱東 : 『古歌硏究』(1975), pp. 284~289
29) 池憲英 : 『鄕歌麗謠新釋』(1947), p. 20
30) 홍기문 : 『향가해석』(1956), pp. 139~140
31) 金俊榮 : 『鄕歌文學』(1983), p. 106
32) 徐在克 : 『新羅鄕歌의 語彙硏究』(1979), p. 11
33) 金完鎭 : 『鄕歌解讀法硏究』(1982), pp. 75~7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去於丁 爲尸知」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筆者는 「此地肹」에 있어 「此地」 두 字를 모두 訓讀하여 「이 짜」이라 읽는다. 「肹」은 音借 「흘」,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此地肹」에 對하여는 「이 짜흘」이라 읽고, 「이 땅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此地肹」을 「이 짜흘」로 읽는 데에는 表記에 若干의 差異들이 있기는 하지만 別異論이 없을 것 같다.

「捨遣只」에 있어 「捨」는 訓讀 「ᄇᆞ리」 「遣」는 音借 「고」, 「只」는 通音略借 「ㄱ」 強勢添尾素.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捨遣只」에 對하여 「ᄇᆞ리곡」이라 읽고 「버리고」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捨遣只」에 對하여 小倉進平에게 있어서는 「버리고」이요, 徐在克에게 있어서는 「ᄇᆞ리겨」이고, 池憲英은 「ᄇᆞ리고아」로 나와 있는데 對해 梁柱東·金俊榮·金完鎭·金善琪의 諸氏는 「ᄇᆞ리곡」으로 읽고 있다. 한편 정렬모는 「捨遣只」에 있어 「遣」에서 끊어 읽어 「捨遣」로써 「바리고」, 홍기문은 「ᄇᆞ리고디」로 나와 있다. 이 句節의 解讀에 關한 限, 筆者는 梁·金(俊)·金(完)·金(善)等 諸家의 解讀을 正鵠을 얻은 것으로 본다.

「於冬是」에 對하여는 「於」는 音借 「어」, 「冬」은 轉音借 「듣」, 「是」는 訓借 「이」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於冬是」에 對하여 「어들이」, 곧 「어드리」이라 읽고 「어디로」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그런데 「於冬是」가 小倉進平·梁柱東·池憲英에게 있어서는 「어듸」이요, 金完鎭·徐在克·홍기문에게 있어서는 「어드리」이고, 金俊榮에게서는 「어ᄃᆞᆯ이」, 정렬모는 앞의 「只」까지를 包含한 「기 어디」로써 「그 어디」, 金善琪는 「오ᄃᆞᆯ이」로 나와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어드리」와 「어ᄃᆞᆯ이」는 類似音이지만 「어드리」를 音韻論的으로 더 나은 解讀으로 評價하려 한다.

「去於丁」에 있어 「去」 訓讀 「가」, 「於」 略訓借 「ㄹ」, 「丁」 略音借 「뎌」 疑問感嘆形助詞, 따라서 「去於丁」은 「갈뎌」이라 읽고 「가겠는가」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去於丁」을 「가ᄂᆞᆫ뎡」으로 처음 解讀한 이는 小倉進平[34]이었다. 그 後 梁柱

34) 小倉進平 : 『鄕歌及吏讀の硏究』(1929), pp. 168~16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東[35]에게서는 「갈뎌」로 읽고 있고, 池憲英[36]·홍기문[37]에게서는 「가뎌」로 풀이되고 있으며, 金善琪[38]의 「가오댕」, 徐在克[39]의 「가는뎡」, 金俊榮[40]의 「녀뎌」, 金完鎭[41]의 「가ᄂᆞᆯ뎌」, 정렬모[42]의 「가오자」 等의 解讀이 이어져 나왔으나 只今까지의 解讀中에서는 梁柱東의 「갈뎌」를 筆者는 最上의 成果로 삼으려 한다.

「爲尸知」에 對하여는 「爲」 訓讀 「ᄒᆞ」, 「尸」 略音借 「ㄹ」, 「知」 音借 「디」.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爲尸知」에 對하여 「ᄒᆞᆯ디」 이라 읽고, 「할지면」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ᄒᆞ(動詞語幹)+ᄋᆞᆯ디(假定拘束法語尾)

「爲尸知」를 「ᄒᆞᆯ디」로 읽는 데에는 別 異論이 없을 것 같다.

「國惡支持以支知古如」에 있어 筆者는 「國 惡支 持以支 知古如」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筆者에게 있어 「國」은 訓讀하여 「나라」 이라 읽는다. 「惡支」에 對하여는 「惡」 轉音借 「엇」, 「支」 音借 「디」. 그러므로 「惡支」에 對하여는 「엇디」이라 읽고 「어찌」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持以支」에 있어 「持」는 訓讀 「디니」, 「以」 音借 「이」 「디니」의 末音添記, 「支」 音借 「기」 名詞形語尾. 그러므로 筆者는 「持以支」에 對하여 「디니기」이라 읽고 「保全할 것」 또는 「保全할 바」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持以支」에 對하여 小倉進平[43]의 「디녀」, 梁柱東[44]·金善琪·홍기문[45]의 「디니디」, 池憲英의 「디니ㅅ」, 金俊榮[46]의 「디낫」, 徐在克의 「디니히」, 金完鎭[47]의

35) 梁柱東 : 『古歌硏究』(1975), pp. 298~305
36) 池憲英 : 『鄕歌麗謠新釋』(1947), p. 20
37) 홍기문 : 『향가해석』(1956), p. 293
38) 金善琪 : 金完鎭著『鄕歌解讀法硏究』(1982), p. 222
39) 徐在克 : 『新羅鄕歌의 語彙硏究』(1979), p. 12
40) 金俊榮 : 『鄕歌文學』(1983), p. 107
41) 金完鎭 : 『鄕歌解讀法硏究』(1982), p. 76
42) 정렬모 : 『향가연구』(1965), p. 293
43) 小倉進平 : 『鄕歌び吏讀の硏究』(1929), p. 169
44) 梁柱東 : 『古歌硏究』(1975), pp. 307~309
45) 홍기문 : 『향가해석』(1956), p. 149
46) 金俊榮 : 『鄕歌文學』(1983), p. 108
47) 金完鎭 : 『鄕歌解讀法硏究』(1982), p. 7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 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디니기」, 그리고 정렬모는 앞의 「支」까지를 包含한 「支特以」(가지로)[48]로써 「갈수록」으로 나와 있다. 文字 그대로 多樣한 解讀이라 하겠다. 只今까지의 解讀中 筆者는 金完鎭의 「디니기」를 最上의 成果로 삼으려 한다.

「知古如」에 對하여 第二名에서 이미 論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再論하지 않겠다.

筆者는 「安民歌」 第四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이 짜홀 ᄇᆞ리곡 어드리 갈뎌 홀디
나라 엇디 디니기 알고다

解 釋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 지면
나라를 어찌 保全할 바를 알겠도다

第五名 :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後句」는 前八行이 前二句임에 對해 後二行이 後一句임을 나타내는 語詞로서 歌唱에 있어 「阿耶」等과 같은 嗟辭(아으)를 代身하여 쓰여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後句」에 對하여는 「아으」이라 읽고 「아아!」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君如」에 있어 「君」은 音讀, 「如」는 義訓讀 「닽이」.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君如」에 對하여는 「君닽이」, 곧 「君다비」이라 읽고 「임금답게」를 뜻하는 語詞로 풀이하려 한다.

「君如」를 「님금이다」로 처음 解讀한 이는 小倉進平이었다. 그 後 梁柱東·池憲英에게 있어서는 「君다이」이고, 홍기문은 「군(君)다비」, 金俊榮은 「君다비」, 徐在克은 「君ᄀᆞᆮ」, 金完鎭은 「君다」, 金善琪는 「님감답이」, 정렬모는 「업 처로」로 이어져 나와 있다. 副詞形 「如」는 十六世紀 前까지는 「닽이」, 곧 「다비」이라 읽었으므로 筆者는 홍기문의 「군(君)다비」를 最上의 成果로 보려 한다.

48) 정렬모 : 『향가연구』(1965), p. 294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 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臣多支」에 對하여는 「臣」은 音讀, 「多」는 義訓借 「닿」, 「支」는 略音借 「이」 副詞派生接尾辭.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臣多支」에 對하여는 「臣닿이」 곧 「臣다비」이라 읽고, 「臣답게」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臣(名詞)+닿(形容詞派生接尾辭)+이(副詞派生接尾辭)

形容詞語幹

→ '臣닿이' → '臣다비'……(副詞)

以上에 있어 보매 「君如 臣多支」는 「君如 臣如」를 뜻하는 語句로 보아지며 따라서, 「多支」와 「如」는 同語異寫임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臣多支」가 小倉進平에게 있어서는 「臣이다」이요,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臣다이」이고, 池憲英에게서는 「臣닷」, 金俊榮은 「臣닿」, 徐在克·金完鎭·홍기문 等은 「臣다히」, 정렬모는 「원 답기」로 多樣한 解讀이 보인다. 이 句節에 對하여 筆者는 「臣+닿+이」의 結合으로서의 語詞 「臣답이」, 곧 「臣다비」를 提示하여 둔다.

「民隱如」에 對하여는 「民」은 音讀, 「隱」은 略音借 「ㄴ」 「믿」의 末音添記, 「如」는 義訓讀 「답이」, 곧 「다비」.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民隱如」는 「民다비」이라 읽고 「民답게」 또는 「百姓답게」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民隱如」를 「民이다」로 처음 解讀한 이는 小倉進平[49]이었다. 그 後 梁柱東[50]의 「民다이」, 池憲英[51]의 「民은다이」, 홍기문[52]의 「民은 다비」 金善琪[53]의 「알깐답이」, 정렬모[54]의 「아롭 슬릿」으로써 「백성을 아파하듯」, 金俊榮[55]의 「民다비」, 徐在克[56]의 「民ᄀᆞᆮ」, 金完鎭[57]의 「民다」等의 解讀이 이어져 나왔으나 文脈의 性格이나 語法上 妥當하지 않다고 筆者는 본다.

49) 小倉進平 : 『鄕歌び吏讀の硏究』(1929), p. 170
50) 梁柱東 : 『古歌硏究』(1975), p. 312
51) 池憲英 : 『鄕歌麗謠新釋』(1947), p. 20
52) 홍기문 : 『향가해석』(1956), p. 151
53) 金善琪 : 金完鎭著 『鄕歌解讀法硏究』(1982), p. 221
54) 정렬모 : 『향가연구』(1965), p. 295
55) 金俊榮 : 『鄕歌文學』(1983), p. 108
56) 徐在克 : 『新羅鄕歌의 語彙硏究』(1979), p. 12
57) 金完鎭 : 『鄕歌解讀法硏究』(1982), p. 7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 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홍기문은 그의 著書『향가해석』에서

「또 전체로 보더라도 〈君다비 臣다히 民은다비〉라고 하는 것이 말을 놓는 편으로나 글'귀를 만드는 편으로나 모두 더 다채롭게 된다. 있는 〈隱〉자를 굳이 빼고 읽어야 할 것은 없다」

라고 하여 「民隱如」에 對하여 「民은 다비」로 臨하고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民隱如」에 對하여 「民은 다비」로 읽을 境遇, 「民은 다비」에 對하여 文法的 分析을 加하여 보면,

民(名詞)+은(補助詞)+답(形容詞派生接尾辭)+이(副詞派生接尾辭)

와 같이 된다. 그런데 「民은 다비」가 副詞形語詞가 되려면, 名詞(民)와 形容詞派生接尾辭(답)의 結合으로써 形容詞語幹(民답)이 成立되어야 하는데 本條에서는 名詞(民)와 形容詞派生接尾辭(답) 사이에 對照나 強調 또는 主題를 나타내는 補助詞 「은」이 插入되어 있는 꼴이므로 語法上 成立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一般的으로 助詞뒤에는 派生接尾辭가 올 수 없다. 따라서 '助詞+派生接尾辭'의 語形을 지닌 「民은 다비」는 言語로서 成立될 수 없다. 그러므로 홍기문의 「民隱如」에 對한 解讀 「民은 다비」는 따를 것이 못된다.

「爲內尸等焉」에 있어 「爲內」에 對하여는 「爲」 訓讀 「ᄒᆞ」, 「內」 轉音借 「니」.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爲內」에 對하여는 「ᄒᆞ니」라 읽고, 動詞 「ᄒᆞ니다」(行動하다)의 語幹 「ᄒᆞ니」로 보려 한다. 「尸等焉」에 對하여는 「尸」 略音借 「ㄹ」, 「等」 通音借 「ᄃᆞᆫ」, 「焉」 略音借 「ㄴ」 「ᄃᆞᆫ」의 末音添記. 따라서, 「尸等焉」은 「ㄹᄃᆞᆫ」이라 읽는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爲內尸等焉」에 對하여는 「ᄒᆞ니」+「ㄹᄃᆞᆫ」→「ᄒᆞ니ㄹᄃᆞᆫ」 곧 「ᄒᆞ닐ᄃᆞᆫ」이라 읽고 「行動할지면」을 뜻하는 語詞로 풀이하려 한다. 卽

ᄒᆞ니(動詞語幹)+ㄹᄃᆞᆫ(假定拘束法語尾)

그런데 金完鎭은 그의 著書『鄕歌解讀法硏究』에서

'爲內尸等焉=ᄒᆞᄂᆞᆯᄃᆞᆫ'은 이미 梁柱東에게서 定立된 것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라고 하고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爲內尸等焉」에 對하여 「ᄒᆞᄂᆞᆫ돈」으로 읽을 境遇 「ᄒᆞᄂᆞᆫ돈」은, 卽

ᄒᆞ(動詞語幹)+ᄂᆞ(現在法語尾/確定法)+ᄋᆞᆯ(未來法語尾/未定法)+ᄃᆞᆫ(條件法語尾)

와 같이 되어 確定法과 未定法이 서로 矛盾이 되어 語法上 成立이 되지 않는다고 筆者는 본다.

筆者는 지금까지 試圖한 「安民歌」 第五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아으 君다ᄫᅵ 臣다ᄫᅵ 民다ᄫᅵ ᄒᆞ닐ᄃᆞᆫ

解 釋

아아! 임금답게 臣下답게 百姓답게 行動할지면

第六名 : 國惡太平恨音叱如

第六名에 對하여는 「國惡 太平恨 音叱如」와 같이 分節하여 읽어 從來의 解讀者들에서와는 다른 秩序를 筆者는 생각한다.

「國惡」에 있어 「國」은 訓讀하여 「나라ᄒᆞ」, 「惡」은 音借 「오」. 따라서, 「國惡」은 「나라호」이라 읽는다. 「호」는 「후」(後)를 뜻하는 接尾辭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후」(後)를 「뒤」를 뜻하는 말로 본다면, 「國惡」(나라호)는 「나라의 뒤」 또는 「나라의 뒷날」을 뜻하는 語詞로 把握된다.

「國惡」에 對하여는 小倉進平의 「나라해」, 梁柱東·정렬모의 「나라악」, 池憲英의 「나라옷」, 金俊榮·金完鎭의 「나락」, 徐在克·金善琪의 「나라」, 홍기문의 「나라아디」等의 解讀이 이어져 나왔으나 文脈의 性格上 妥當치 않다고 筆者는 본다. 筆者의 見解로는 「國惡」은 마땅히 「나라호」이라 읽고 「나라의 뒷날」 또는 「나라의 뒤」를 뜻하는 語詞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太平恨」에 對하여는 「太平」은 音讀, 「恨」은 音借 「ᄒᆞᆫ」. 그러므로 「太平ᄒᆞᆫ」이라 읽는다. 諸家中 「太平恨音叱如」에 있어 「太平恨 音叱如」와 같이 分節하여 읽은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意外의 일에 屬한다 하겠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音叱如」에 있어 「音」은 訓讀 「소리」, 「叱」에 對하여는 略音借 「ㅅ」으로 읽는 것이 原則이나 여기서는 시다(이시다(有)의 「시」가 「ㅅ」으로 縮略된 形態로 筆者는 보려 한다. 따라서 「叱」은 「시」이라 읽는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音叱如」에 對하여는 「소리시다」이라 읽고, 「소리가 있다」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소리(名詞) + 이(主格助詞) + 이시(動詞語幹) + 다(終結語尾)

「太平恨音叱如」에 있어 「太平恨 音叱如」와 같이 끊어 읽지 않고, 「太平恨音叱如」로써 「太平(이)ᄒᆞ와이다」로 처음 읽은 이는 小倉進平이었다. 그 後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太平ᄒᆞ니잇다」이요, 池憲英에게서는 「太平ᄒᆞ릿다」이고, 홍기문은 「태평ᄒᆞ니밋다」(태평ᄒᆞ오리다), 金俊榮·徐在克은 「太平ᄒᆞᆷ다」, 金完鎭은 「太平ᄒᆞᄂᆞᆸ짜」(太平을 持續하느니라)로 나와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이것은 「太平恨 音叱如」와 같이 分節하여 「太平한 소리시다」로 解讀하고, 「太平한 소리가 있다」로 풀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렬모는 그의 著書 『향가연구』에서 「太平 恨 音叱如」과 같이 끊어 읽어 「太平 한 음셔」이라 읽고, 「한」은 不滿, 「음셔」는 「없다」를 뜻하는 語詞로 보아 「太平 아무 거침 없으리」로 풀이하고 있으나, 따를 것이 못된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筆者는 「安民歌」 第六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나라호 太平ᄒᆞᆫ 소리시다

解 釋

나라의 뒷날에 太平한 소리가 있다.

筆者는 「安民歌」에 對하여 지금까지 試圖한 解讀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君은 어비여
臣은 ᄃᆞ소샬 어시여,
民은 얼ᄒᆞᆫ 아히고 ᄒᆞ샬디
民이 ᄃᆞᄉᆞᆯ 알고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굴 룸흘 살릿솜 物生
이흘 익혀머기 다술아라,
이 짜흘 브리곡 어드리 갈뎌 홀디
나라 엇디 디니기 알고다.
아으, 君다빙 臣다빙 民다빙 ᄒᆞ닐ᄃᆞᆫ,
나라호 太平ᄒᆞᆫ 소릐시다.

「安民歌」에 對한 解讀의 結果를 筆者의 意見에 따라 解釋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임금은 아비요
臣下는 사랑하실 어미요,
百姓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지면
百姓이 사랑해 줄 것을 알겠도다.
굴의 큼을 살(居)게 하는 안(內)의 무리 목숨
이들을 익혀먹게 다스려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지면
나라를 어찌 保全할 바를 알겠도다.
아아, 임금답게 臣下답게 百姓답게 行動할지면,
나라의 뒷날에 太平한 소리가 있다.

Ⅳ. 結 言

筆者는 지금까지 「安民歌」에 對하여 論議한 것을 要約 整理하여 結言으로 삼으려 한다.

1. 「安民歌」는 第二行 末尾에 終結語尾 「여」, 第六行 末尾에 命令法語尾 「아라」, 第九行 末尾에 假定拘束法語尾 「ᄋᆞᆯᄃᆞᆫ」처럼 特異한 連結語尾를 內包하고 있으나 典型的인 三句六名體歌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2. 「愛賜尸」에 對하여는 「ᄃᆞᄉᆞ샬」이라 읽고 「사랑하실」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ᄃᆞᆺ(動詞語幹) + ᄋᆞ시(主體尊待先語末語尾) + 오(對象法語尾) + ᄋᆞᆯ(冠形法語尾)
3. 「爲賜尸知」에 對하여는 「ᄒᆞ샬디」이라 읽고 「하실지면」을 뜻하는 語詞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풀이하려 한다. 卽

ᄒᆞ(動詞語幹) + 시(主體尊待補助語幹) + 오(對象法先語末語尾) + ᄋᆞᆯ디(假定拘束法語尾)

4. 「愛尸」에 對하여는 「ᄃᆞᄉᆞᆯ」이라 읽고, 動名詞로 보아 「사랑해 줄 것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았다. 卽

ᄃᆞ(動詞語幹) + ᄋᆞᆯ(未定法動名詞語尾)

5. 筆者에게 있어 「知古如」에 對하여는 「알고다」이라 읽고 「알겠도다」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알(動詞語幹) + ᄋᆞᆯ(未定先語末語尾) + 고(強調, 咏嘆先語末語尾) + 다(敍述法終結語尾)

6. 「窟理叱大肹」에 對하여는 「굴 ᄀᆞᆷᄒᆞᆯ」이라 읽고 「굴의 큼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았고, 「生以支所音」에 對하여는 「살릿솜」이라 읽고 「살(居)게 하는 안(內)의」을 뜻하는 語詞로 把握하였다.

7. 筆者는 「喰惡支」에 對하여 「익혀머기」이라 읽고 「익혀먹게」를 뜻하는 語詞로 把握하였으며, 「治良羅」에 對하여는 「다ᄉᆞᆯ아라」이라 읽고, 「다스려라」를 뜻하는 語詞로 풀이 하였다.

8. 「다ᄉᆞᆯ아라」의 「아라」는 命令法語尾, 그러나 三人稱에 對한 命令은 本格的인 命令이 될 수 없다. 그런 意味에서 「아라」는 그 語勢가 「如」처럼 強하지 못하고, 文脈上의 意味로는 連結語尾와 같은 機能을 지니고 있다.

9. 筆者에게 있어 「於多是」에 對하여는 「어드리」이라 읽고 「어디로」를 뜻하는 語詞로 보았고, 「去於丁」에 對하여는 「갈뎌」이라 읽고 「가겠는가」를 뜻하는 語詞로 보았다.

10. 筆者는 「惡支」에 對하여는 「엇디」이라 읽고 「어찌」를 뜻하는 語詞로 풀이 하였으며, 「持以支」에 있어서는 「디니기」이라 읽고 「保全할 것」 또는 「保全할 바」를 뜻하는 語詞로 把握하였다.

11. 「君如臣多支民隱如」에 있어 筆者는 「君다비 臣다비 民다비」이라 읽고 "임금답게 臣下답게 百姓답게"를 뜻하는 語句로 풀이하려 한다.

12 「爲內尸等焉」에 對하여는 「ᄒᆞ널ᄃᆞᆫ」이라 읽고 「行動할지면」을 뜻하는 語

성균관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詞로 보려 한다.

13. 「國惡」에 對하여는 「나라호」이라 읽고 「나라의 뒷날」을 뜻하는 語詞로 把握하였으며, 「音叱如」에 있어서는 「소릐시다」 이라 읽고 「소리가 있다」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소릐(名詞)+이(主格助詞)+이시(動詞語幹)+다(終結語尾)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7 11:17(KST)